<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사람은 눈에 보여도 이해도 못 하고, 심정도 모른다. 약하기도 하고, 변심도 많도다.

2.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능력이 있으시니,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고 도울 것을 돕고 할 일을 해 주신다.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실감이 나는 존재자이시다.

3.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다 느끼게 해 주시고, 마음과 생각으로 알게 해 주신다.

4. 영과 혼은 육보다 차원이 높으니, 우리의 영과 혼으로는 전능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육으로 하나님을 느끼게도 해 주신다.

5.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말을 하면 다 들으신다. 눈으로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. 이를 알고 하나님이 안 보여도 믿고 실감하여라.